

현장시선



오 애 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일본에 게 국토를 수탈당한 후 다시 국토를 회복한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일본은 보복조치를 감행해 올해 7월 4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한일관계 속에서 현재 우리의 종이지적도는 일

드론 활용한 국토의 주권화와 국토정보플랫폼 구축

본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때 중 이로 만들어진 부정확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존 종이 지적도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적도상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해 일본의 흔적을 지우고 세계표준에 맞춰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비뚤어진 토지 경계를 바르게 등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총 사업비 1조3000억원, 전국 3743만 필지 중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측량방법 또한 기존의 종이도면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GNSS(위성측량), 토발스테이션(T/S) 등 고정밀도의 디지털 측량장비를 통해 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드론 촬영기술을 활용한 위치 및 지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X는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매주 11개 드론 팀 24명의 인력을 동원해 제주특별자치도 농경지 전역 약 982.3㎢에 대한 드론촬영을 실시했다. 이는 여의도면적(2.9㎢)의 약 339배에 달하는 넓이로 산악지역인 임야(林野)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주도 내 농경지가 이에 포함됐다. 이번 드론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취득한 정보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중

장기적인 목표인 'GIS기반 농업지원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LX, 제주도청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진행했다. LX는 이번 1차 촬영으로 본격적인 작물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드론 조종인력을 투입해 대상지 전체의 고해상도(3~5cm급) 영상을 취득했고, 2차는 9월과 10월 사이에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어낼 방침이다. 국토기본도 위에 드론 플랫폼을 접목시킨다면 농지위치의 정확도 향상은 물론 농경지 전자지도의 기능성도 향상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고정밀 지적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사설

태풍전야 제주섬, 미리 둘러보고 손써야

제주섬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태풍전야'를 맞았습니다. 세력이 강할 때 제주를 지나면서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과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태풍이 느린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키우며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6일 오전 3시쯤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온 후 이날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제주 서쪽해상을 빠져나갑니다. 링링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비가 제주전역으로 확대돼 7일까지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강수량은 6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는 100~200mm, 많은 곳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300mm 이상 내릴 것

으로 보입니다. 특히 링링은 6일 낮과 7일 사이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45m(시속 126~162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태풍은 위력이 꽤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긴 콘파스·볼라벤급의 태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말에서 9월초 한반도를 강타한 콘파스는 서해상을 거쳐 경기도 북부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콘파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6명이 숨지고, 167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링링은 콘파스보다 더 위력이 셀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강풍 피해 가능성이 큰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장 간판 등 강풍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시설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을장마로 계속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 침수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유비무환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륜차 사고 대책 없나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주에서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계형이라고 하지만 교통질서를 무시하며 목숨까지 내놓은 이륜차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376건(사망 8명·부상 425명), 2017년 374건(사망 11명·부상 442명), 2018년 342건(사망 13명·부상 386명)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272건이 발생해 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3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관광객들의 스쿠터 여행이 늘고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배달원들이 한 음식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월급제 방식이라면, 최근에는 배달앱

과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시간애 쫓겨 교통법규 위반이 다반사로 이뤄져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륜차 사고는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도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경찰도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안전모를 전달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역부족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위 영상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입니다.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관련 법규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계형 운전이라고 하지만 이륜차 사고 역시 이륜차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과 법규를 무시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는 또다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주방에서 불이 나면 'K'만 기억하세요



김 정 훈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최근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식용유 화재 실험을 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재현해 대처 방법을 살펴봤는데,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넣고 가열했다니 12분 뒤 350℃ 안팎에서 유증기가 나왔고, 2분여가 지나 380℃ 가랑에서 불이 붙었다. 혼합유는 7~8분 뒤 280℃ 정도에서 유증기가 나왔고, 3분여 후 360℃에서 발화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리자 수증기로 변하며 기름과 함께 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불꽃이 2m 이상 치솟아 불이 번졌다. 물의 온도와 식용유의 온도 차이가 심해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졌다.

일반소화기로 화재를 진압 해보았는데, 일반 분말소화기나 하룻배 간이 소화용구는 잠깐 불길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아 불이 재발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추측에는 전이나 튀김 등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을 많이 하는데,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급한 마음에 물을 부어 오히려 불길이 더 커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이 주원료로 분사 시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함께 강화액이 비누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어 화재를 끄는 질식효과까지 있다. K급소화기를 사용을 위해 2017년 6월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고 개정 이후 신축되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 소화기 중 1대는 K급 소화기로 비치하도록 했다. 주방에 불이 나면 'K'급 소화기만 꼭 기억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농촌에 진드기 기피제라도 보급해야”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이행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이행을 요청해 주목. 5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도에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우려된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 위반 소지가 있는 구제적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 지사는 최근 보수진영 주최 토론회에서 '도민 민심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후 지난 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기자간담에서 당시 발언에 대해 “적당 수준”이라고 해명. 오은지기자

SFTS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제주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눈총. 지난해 전국에서 259명의 환자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했고, 제주

에서만 15명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으며 올들어 이달 현재 6번째 환자가 발생했으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홍보. 한 제주시민은 “접촉 빈도가 높은 농촌에 진드기 기피제라도 보급해야지, 수년동안 물리지 말라고 홍보만 한다”고 질타. 고대로그기자

농협, 항공화물 중단 공동대응

○…10월 1일부터 예고된 대형항공사의 지방항공화물 운송중단과 관련, 제주도와 제주농협이 최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며 결과가 주목. 도는 국토교통부에 운송중단 철회를 요청하고, 농협은 항공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해상운송 전환 확대 및 신규 거래처 발굴을 통한 농산물 출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 반대급 제주농협 본부장은 “도와의 공동대응·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항공사로 철회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부 고

정주현 어머니 **광산노씨 은숙** (향년 57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5일 06시 1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7일(토)
▶발인일시: 2019년 9월 8일(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남 편 정한수
아 들 정주현
주 환
딸 정희진
며느리 오유진

※ 연락처 : 정주현 010-9781-1909
정한수 010-9433-1909
정주환 010-3457-0409
정희진 010-8389-4001
오유진 010-4686-6755

부 고

김수영(광산김씨제주도종친회장·정효원 원장) 어머니 **남양홍씨 태아** (향년 100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5일 08시 3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6일(금)
▶발인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남국선원

아 들 김수정(敬) 며느리 강영자
수영건형(敬) 이화순
딸 김수연(敬) 사 위 오승희
수선생(敬) 오경수
유생(敬) 송경욱
유찬석(敬) 이일국
유민석(敬) 김영숙
홍수(敬) 희진
홍민(敬) 모속
홍민(敬) 미영
외손자 고훈호 동민 송현미
외손녀 동준 이희선
송진석 이희진

※ 연락처 : 김수영 010-3693-0292
김건형 010-8211-1111
김명찬 010-2689-1918
김유찬 010-4699-8269
이화순 010-8660-4881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홍양송씨 효인** (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6일

남 편 김옥천
아 들 김종훈
딸 김애선
애순
애자
애경
애실
애란

며느리 이윤희
사 위 오재윤
김동수(喪)
조창래
오기영
최종욱

황금향 판매

당도 탁월, 산도 적음
껍질 잘 벗겨짐

생산자 직거래, 택배비 포함

5k(25개~35개) 4만원
10k(50개~70개) 7만원

문의 **오문식 010-3696-3933**
(도매도 가능합니다.)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소방서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